

오키나와 폭력에 대한 문학적 보복과 '오키나와 리얼리즘'

— 메도루마 순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고명철*

- I. 메도루마의 문학적 행동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II. 오키나와를 에워싼 폭력의 중심, 천황에 대한 문학적 보복
- III. 오키나와 전후의 현실에 침전/전도된 제국의 폭력에 대한 응시
- IV. 오키나와의 분열증적 증후와 혼돈에 대한 소설적 전언
- V. 오키나와의 디스토피아를 경계한 문학적 보복

국문요약

현재 활동하는 오키나와의 작가 중 오키나와의 독립론을 뚜렷한 정치의식으로 표방하면서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메도루마 순(目取眞俊, 1965~)에 대한 이해는 그의 문학과 분리시켜 생각해서 곤란하다. 이것은 메도루마의 초기 작품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초기 작품은 메도루마의 문학적 행동주의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바, 오키나와의 폭력 양상과 그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폭력은 오키나와를 덧씌운 전·후의 위선적 현실-평화 그 자체가 얼마나 폭력을 은폐하고 있는지, 이는 오키나와전에 대한 기억과 투쟁의 정치를 순치시키고 무화시키려는 국민국의 제도적 폭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메도루마는

*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오키나와전의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천황제를 과감히 비판할 뿐만 아니라 미군 점령이 야기한 술한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counter violence), 즉 문학적 보복을 가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키나와의 일상에 깊숙이 침전된 온갖 폭력의 양상을 응시함으로써 오키나와를 일방적 폭력의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오키나와 내부에 파리를 틀고 있는 오키나와에 침전/전도된 제국의 폭력의 양상과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분열증적 증후를 앓고 있는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매서운 비판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메도루마의 작품 속에서 주목되는 오키나와를 에워싼 폭력의 양상이 그의 문학적 행동주의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메도루마는 그만의 독특한 문학적 보복을 통해 표면상 오키나와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미국-미군 기지와 이것의 이해관계에 편승한 일본을 겨냥한 대항폭력을 실천한다. 물론 여기에는 오키나와 폭력의 기제에 대한 발본적 문제제기와 합리적 해결책 없이 일본이 기만적으로 포장하는 평화의 쉼터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유무형의 폭력으로 점철된 지옥도가 바로 오키나와의 현실로 도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따라서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대항폭력을 단순히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은 ‘오키나와 리얼리즘’의 한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주제어: 메도루마 순, 문학적 보복, 폭력, 대항폭력, 오키나와 리얼리즘, 전후.

I. 메도루마의 문학적 행동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키나와 안팎으로 켜켜이 에워싼 정치사회적 문제들, 이것과 연관하여 새롭게 재구성되고 발견되는 문제의식들은 기존 낯익은 리얼리즘의 문제틀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오키나와처럼 제국들(중국/일본/미국)의 가장자리에서 동아시아의 침예한 국제정세가 부딪치는 논쟁의 지점을 형성하는 곳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구미중심주의에 착목한 리얼리즘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¹⁾ 여기에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 속에서 구미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들

로서는 오키나와처럼 지역과 세계가 전면적으로 상호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메도루마 슌(目取眞俊, 1965~)의 문학은 이러한 새로운 어젠다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비평적 모험을 요구한다. 그것은 메도루마가 오키나와의 “독립을 생각하”²⁾면서 동시에 “오키나와 문제의 궁극적인 지점을 헤아릴”³⁾ 수 있다는 데 압축된 그의 뚜렷한 정치의식의 안팎을 이루는 문학적 실천에 대한 비평의 몫을 수행하는 일이다. 현재 활동하는 오키나와의 작가 중 이처럼 뚜렷한 자신의 정치의식을 표방하면서

- 1) 필자는 2016년 10월 28일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미래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제주인문학 가치 담론’에서 제주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제주 리얼리즘’의 문제의식을 논쟁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근대의 객관 세계를 이루는 진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윤리적·미학적 속성을 띠는 기존 리얼리즘은 그것이 실현되는 구체적 공간간의 맥락에 따라 그 현실적 함의가 지닌 실재가 다르게 파악되는 바, 이렇게 우리에게 낮익은 리얼리즘의 문제들이 구미 중심주의의 근대에 그 기원을 두고 발전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제주문학의 특질과 그 가치는 기존 리얼리즘으로 온전히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루카치의 타고르에 대한 비판을 신랄히 문제삼은 인도의 탈식민주의 이론가 아시스 난디(A.Nandy)로부터 시사받았음을 밝혀둔다. 아시스 난디는 1916년에 발표된 타고르의 여덟 번째 장편 소설 『집과 세상』이 지닌 내셔널리즘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반식민주의를, 당대의 리얼리즘 이론가인 루카치가 ‘유럽중심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히 오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다. 아시스 난디는 인도 사회를 중심으로 한 폭력, 반제국주의, 내셔널리즘의 연관에 대한 타고르의 정치적 소설에 대해 루카치가 그에게 낮익은 유럽중심주의로 비평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유럽중심주의적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A.Nandy, *The Illigimny of Nationalism Rabindranath Tagore And The Politics of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아시스 난디의 루카치 비판은 ‘제주 리얼리즘’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리얼리즘’을 구상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 낮익은 구미중심주의에 기반한 근대의 동일자-단수 개념으로서 리얼리즘을 이해하는 것보다 ‘또 다른 근대’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들을 넘어서는 ‘월경광장(越境廣場)’의 문학적 어젠다를 함의하고 있는 지역의 가치에 주목한 리얼리즘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2) 김재용·메도루마 슌, 「대담: 메도루마 슌」, 『지구적 세계문학』 5호, 2015년 봄호, 359쪽.

3) 김재용·메도루마 슌, 위의 책, 366쪽.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메도루마에 대한 이해는 그의 문학과 분리시켜 생각해서 곤란하다. 거의 매일 헤노코 바다에서 미군 기지 건설에 맞서 해상투쟁을 벌이고 있는 메도루마의 운동가로서의 삶은 그의 문학 세계를 이루는 작가의 모럴 및 미적 행동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메도루마의 문학에 나타난 폭력과 연관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메도루마의 문학을 자칫 일본의 사소설 위주의 국민문학의 어떤 결락된 부분을 보충해주는 차원의 지역문학의 일종으로서, 혹은 오키나와 문학사에서 다소 급진적 정치의식을 띤 문학적 행동주의의 한 사례로서 그의 문학을 제도권의 논리로 순치시킬 수 있다. 이것은 메도루마의 문학이 지닌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인,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존재가 오키나와에서 전‘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인식에 불과한 것인지, 그래서 전‘후’가 전쟁과 애써 단절함으로써 오키나와가 일본의 평화헌법 아래 일상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 정치의 수사에 불과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뿐만 아니라 미일안보체제에 놓인 오키나와가 항시 전쟁의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키나와의 전쟁과 직간접 연루된 폭력의 정치와 단절짓고 이를 극복하려는 메도루마의 래디컬한 문학적 실천, 즉 ‘오키나와 리얼리즘’을 제도적으로 관리 및 봉합하려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메도루마의 문학적 행동주의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그의 작품⁴⁾ 속에서 주목되는 오키나와의 폭

4)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메도루마의 작품은 「코자 거리 이야기」(『지구적 세계문학』 8호, 2016년 봄호)를 제외하면, 아직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이다(「어군기(魚群記)」, 「마야가 바라본 하늘(マーの見た空)」, 「아기 새(雛)」, 「평화길로 이름 붙여진 거리를 걸으면서(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거미(蜘蛛)」, 「싹트기(發芽)」, 「1월 7일」). 필자의 논문에서 이들 작품을 인용할 경우 한국어 번역본이 미출간인 만큼 일본어 원문이 실린 『目取眞俊短編小説選集1 魚群記』(影書房, 2013)을 활용한다. 따라서 작품 인용은 별도의 각주 없이 본문에서 페이지수 만을 표시하는데 이는 모두 일본어 원문 작품집에 따른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조만간 한국의 출판사 보고서에서 광형덕의 번역으로 이 작품집이 출판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인용되는 작품은 전적으로 광형덕 번역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메도루마의 초기 작품에

력 양상과 그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다.⁵⁾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폭력은 오키나와를 덧씌운 전·후의 위선적 현실·평화 그 자체가 얼마나 폭력을 은폐하고 있는지, 이는 오키나와전에 대한 기억과 투쟁의 정치를 순치시키고 무화시키려는 국민국가의 제도적 폭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메도루마는 오키나와전의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천황제를 과감히 비판할 뿐만 아니라 미군 점령이 야기한 술한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counter violence), 즉 문학적 보복을 가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키나와의 일상에 깊숙이 침전된 온갖 폭력의 양상을 응시함으로써 오키나와를 일방적 폭력의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오키나와 내부에 파리를 틀고 있는 오키나와에 전도된 제국의 폭력의 양상에 대해서도 매서운 비판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메도루마의 작품 속에서 오키나와를 에워싼 폭력의 양상이 그의 문학적 행동주의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오키나와 리얼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II. 오키나와를 에워싼 폭력의 중심, 천황에 대한 문학적 보복

메도루마의 전방위적 글쓰기와 운동가로서 실천적 행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 전투와 직간접 연루된 모든 것을 그만의 독특한 ‘기억과 투쟁의 정치학’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메도루마의 문제작들, 가령 「물방울(水滴)」(1997), 「넛들이기(魂込め)」(1998), 「나비떼 나무(群蝶の木)」(2000) 등은 오키나와전의 충격적 실상과 언어절(言語絶)의 지옥도(地獄圖)를 오키나와 특유의 ‘경이로운 현실’로 형상화하고 있는 대표

대한 연구를 통해 필자가 탐구하고 있는 ‘오키나와 리얼리즘’의 한 양상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 동료 연구자 겸 번역자 광형덕 선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5)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로는 광형덕, 「메도루마 순 문학과 미국」(『일본문화연구』 56, 2015), 『오키나와 문학의 힘』(오키나와문학연구회 편, 글누림, 2016 및 심정명, 「오키나와, 확장되는 폭력의 기억」, 『인문학연구』 52집, 2016을 들 수 있다.

작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⁶⁾

여기서, 그의 또 다른 문제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평화로 이름 붙여진 거리를 걸으면서(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新沖繩文學』, 1986. 12 이하 「평화거리」로 약칭)와 「1월 7일」(『新沖繩文學』, 1989. 12)이 그것이다. 이 두 작품에서 메도루마는 ‘류큐 처분(1879)’ 이후 일본 제국의 식민지 아래 제2차세계대전의 전화(戰禍)에 휩쓸린 오키나와의 심층에 바로 일본 천황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예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이 한층 문제적인 것은 일본의 국체(國體, national polity)인 천황에 대한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⁷⁾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키나와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고 본토의 신화와 의례에 참여하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순응시켜야 했”⁸⁾음을 고려해 볼 때, 메도루마의 일본 천황에 대한 문학적 보복 그 자체는 오키나와를 억압하고 있는 야마토의 근대 폭력(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야마토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반식민주의 문학의 실천이다.

「평화거리」에서 주목할 인물은 치매에 걸린 우타인데, 그녀는 그의 동세대가 그렇듯이 오키나와전의 트라우마를 심하게 앓고 있다. 남편을 잃고, 무엇보다 가마(동굴)에 피신 도중 어린 장남의 죽음에 속수무책이었던 자신을 향한 죄책감은 평생 우타를 읊아맨 전쟁의 트라우마다. 전

6) 고명철, 「오키나와에 대한 반식민주의로서 경계의 문학: 메도루마의 문학을 중심으로」(『탐라문화』 49호, 2015), 『오키나와 문학의 힘』(오키나와문학연구회 편), 글누림, 2016.

7) 「평화거리」에서 행하는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에 대해 오키나와 문학 연구자 신조 이쿠오는 메도루마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물방울」과 비교할 때 천황과 관련된 오키나와의 전후 상황을 성급히 고발하는 데 치우치다보니 소설의 완성도가 결여된 것으로 「평화거리」를 낮게 평가하는데(곽형덕, 「메도루마 순 문학과 미국」, 『오키나와 문학의 힘』, 138-139쪽), 이것은 「평화거리」에서가 함의한 메도루마의 문제의식을 천착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오키나와 리얼리즘’의 특질을 궁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 개번 맥코맥·노리마쯔 사토코,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 정영신 역, 창비, 2014, 28-29쪽.

쟁에서 살아남은 우타는 억척스레 생선 노점상을 평화거리에서 하면서 생을 유지해왔다. 평화거리는 역설적으로 우타에게 전쟁의 트라우마를 잠시 잊고 살아남은 자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신생의 터전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잊혀질만하면 그때의 참혹한 기억이 소환되는 그리하여 억압된 것이 귀환하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몹시 화려한 컬러타일이 전면에 깔린 거리”와 “유리창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쇼퍼객들은 수족관 속의 물고기”처럼 “평화거리의 혼잡함”과 자연스레 어울려 오키나와전의 참상이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거리’의 이름에 걸맞은 오키나와의 현재적 ‘평화’와 ‘번영’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이 평화거리는 “패전 직후부터 가게를 낸 여자들이 밖에서 몰려오는 파도에 몸을 맞대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산호처럼 작은 가게를 늘어놓”은 바, “여기서는 어떠한 괴로움도 웃음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평화거리는 오키나와전과 단절된 채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의 전·후’를 상징조작하기 위한 이른바 ‘오키나와 봄’의 차원(소비와 관광)으로만 부각되는 공간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희생으로 전략한 오키나와의 역사적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오키나와 민중들이 그 전쟁의 충격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민중의 낙천적 생활의 의지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바로 이곳에서 천황을 향한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작품 속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전후 오키나와를 처음 방문한 황태자(현재의 천황) 부부는 히메유리 탑 수로에 숨어있던 남성에게 화염병 테러의 급습을 당한 적 있다. 그때 일본 열도가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으로, 오키나와는 일본의 국체를 부정하는 항거의 표현을 분명히 하였다. 「평화거리」에서는 오키나와의 역사적 분노를 ‘평화거리’에서 다시 드러낸다. 황태자 부부가 오키나와의 ‘헌혈추진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는데, 예전의 테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오키나와 지자체는 황태자 부부 경호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과잉 경비’로 비판받을 만큼 오키나와 지자체는 조금이라도 평화거리에서 황태자 부부에게 위해를 가하는 테러를 철저히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은 기어코 일어나고 말았다. 치매에 걸린 우타는 평화거리로 나왔고, 때마침 평화거리를 지나가던 황태자 부부의 차량에 다가가 우타의 배설물로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황태자 부부를 태운 차량이

우타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것이다.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백주대낮에 연출된 평화거리에는,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는 어울리지 않는 문란한 웃음이 흘러나왔다(263쪽).” 메도루마는 작중 인물 우타의 황태자 부부를 향한 똥칠하는 치매 행위를 통해 히메유리 탑에서 있었던 화염병 테러에 결코 뒤지지 않는 항거의 행동을 수행한다. 그것은 평화거리에서 생선 노점상을 하고 있는 인물의 항변⁹⁾을 통해 읽을 수 있듯 오키나와전의 참상과 트라우마를 심하게 앓고 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일본 천황의 존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 역사적 보복을 문학적 차원으로 수행하기 위해 메도루마는 ‘오키나와 봄’이란 경제적 차원으로 오키나와의 상처를 봉합하고 망각시키려는 ‘평화거리’에서, 그것도 위선적 평화의 이데올로기로 상징조작된 황태자의 오키나와의 방문에 대한 준열한 역사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실제로 1975년 7월 17일에 있었던 히메유리 탑에서 황태자 부부에 대한 화염병 테러가 오키나와전 자체에 대한 천황의 전쟁 책임을 겨냥한 것이라면, 「평화거리」에서 메도루마가 행한 황태자 부부를 대상으로 한 문학적 보복은 ‘평화거리’란 호명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오키나와전의 참상뿐만 아니라 미군 점령기, 그리고 일본 복귀 후 미군기지로 전략한 오키나와의 전·후의 현실이 위선적 평화이며, 더 이상 이러한 기만의 수사로 점철된 오키나와의 평화를 일상으로 내면화시켜서는 안 되고, 이 위선과 기만의 평화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환기시켜준다. 말하자면,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은 ‘평화거리’가 함의하는 야마토 지향의 평화가, 오키나와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가치와 얼마나 위배되는지 그 모순과 균열을 생생히 보여준다.¹⁰⁾

9) 평화거리의 노점상 후미는 다음과 같이 천황에 대한 노골적 증오와 비판을 서슴없이 일갈한다. “(前略) 확실히 나도 황태자 전하가 오키나와에 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도 오빠도 천황을 위해서라면 군대에 끌려가서 전쟁에서 죽었어. 천황이라도 황태자라도 눈앞에 있으면 귀싸대기를 때리고 싶어(後略)(257쪽).” “환-영? 으음 너 말이야. 전쟁에서 형님이랑 누님을 잃었잖아. 그런데도 그 입에서 환영 한다는 말 따위가 용케도 나오는구나. 나는 너희 기쿠 언니가 아단 바로 팔랑개비를 말들어 준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상냥하고 좋은 언니였어. 그런데 언니가 어떻게 됐어? 여자 정신대에 끌려가서 아직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잖아(241쪽).”

이와 관련하여, 메도루마의 문제의식은 에돌아가지 않고 분명하다. 천황이 오키나와를 에워싼 근대 폭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메도루마의 「1월 7일」은 「평화거리」와 다른 접근을 통해 오키나와에서 천황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판한다. 「평화거리」가 ‘평화거리’란 공간이 지닌 오키나와 전·후의 모순과 균열의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면, 「1월 7일」은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지극히 일상적 행동 속에서 천황의 신성성을 조롱하고 심지어 신성 그 자체를 탈각시키고 있다. 이 또한 천황의 존재를 부정하는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천황의 존재와 성스러움이 조롱·멸시·야유되는 것은 작품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천황이 죽었다는 소식, 즉 천황의 붕어(崩御)를 오키나와 젊은 남녀의 섹스 행간에 배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황의 죽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거리의 맥도널드 가게에서 오키나와 현지인과 미군, 그리고 가게 점원 사이에 총기 난사 등 한바탕 활극으로 연출되는가 하면, 작중 화자가 일본 본토에서 온 남자 취객들을 젊은 여인이 있는 술집으로 안내하다가 그들과 난투극을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와 천황을 야유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전자의 경우 메도루마는 천황의 붕어를 오키나와 젊은이의 섹스 장면 사이에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천황의 신성성이 인간의 일상적 섹스와 교차되는, 그래서 천황의 죽음이 신격화된 인간의 죽음으로서 신성의 가치를 띠는 게 아니라 오키나와의 비루한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하는 오키나와의 삶의 ‘사이’로 자연스럽게 버무려 놓음으로써 천황의 존재를 일상의 영역으로 맥락화시킨다. 메도루마의 이러한 서술 의도는 천황의 죽음 소식을 접한 후 작중화자가 빠짱코에 들렀는데, 천황의 죽음으로 빠짱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벽보를 보고 혹시 천황폐하가 일본 빠짱코 조합의 명예회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빠짱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천황의 존재를

10)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 오키나와가 놓인 상황을 서민과 황태자를 선명하게 대비시켜가며 그 메울 수 없는 이득한 간극을 뛰어난 문학적 언어 및 형식으로 조형하고 있다”는 광형덕의 평가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광형덕, 「메도루마 순 문학과 미국」, 앞의 책, 2015, 141쪽.

야유·조롱하는 것으로 드러낸다. 야마토에게는 천황이 성스러운 숭배의 대상이지만, 우치난츄에게는 ‘천황=빠짱코 명예회원’이란 해학적 풍자가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학적 풍자는 국제거리 맥도널드 가게의 난투극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천황의 죽음에 느닷없이 애도를 표하는 작중화자의 친구 오가네쿠가 주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지 않는 모습에 갑자기 분노하면서 옆에 있는 미군과 점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다. 삼시간에 가게 안은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급기야 오가네쿠는 이 와중에 죽고, 미군이 쏜 총에 손님 중 하나는 죽는다. 가게의 폭력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들이닥친 경찰은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하면서 “금세 주위는 흡사 전쟁터처럼 변하고 아비규환이다(325쪽).” 이 느닷없는 가게의 난투극은 흡사 헐리우드의 B급 하위문화의 폭력물 장면과 다를 바 없다. 피아의 구별 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을 보여줄 따름이다. 여기에 누가 무엇 때문에 서로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없다. 오직 보여주는 것은 인간 본성을 이루는 잔혹성과 폭력성을 폐쇄된 공간에서 누가 얼마나 더 잘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결코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가게 안의 이 난데없는 잔혹스런 폭력극의 시발은 천황의 죽음에 있다는 사실이다. 오가네쿠의 갑작스런 이상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가게의 폭력 장면은 엄밀히 말해 현실을 초과한 웃음을 자아낸다. 이것은 무엇을 겨냥한 작가의 서술 책략일까. 가게 안의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 특히 오키나와 전‘후’의 위선적 평화에 내면화된 존재인 오가네쿠와 같은 오키나와 사람은 천황의 죽음으로 비로소 천황으로 덧씌워진 오키나와의 폭력에 노출되면서 그 폭력을 오키나와의 다른 존재들과 폭력의 형식으로 나눠갖는다. 여기서, 가게의 폭력이 오키나와 경찰의 사법 행위에 의해 행해진 또 다른 폭력¹¹⁾으로 진압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오키나와는 전‘후’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여전히 오키나와는 폭력에 예워싸여 있다는 것을 가게 안의 B급 하위문화 폭력물을 통해 해학적 웃음

11) 이것은 작품 속에서 “동시에 가게 안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하면서 경찰이 들이닥친다(325쪽).”와 같은 표현에서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

으로 까발겨진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마지막 장면, 곧 작중화자가 본토에서 온 남자 취객들과 길거리 싸움을 벌이는 것을 끝으로 귀가하여 “천황폐하, 만세”하고 씩씩히 웃으면서 내뱉는 말은 오키나와에서 천황의 존재가 조롱과 멸시 및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돼 있으며, 이렇게 성스러움이 탈각된 천황의 죽음이 오키나와에 내면화된 폭력의 연쇄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신을 향한 냉소로서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요컨대 「1월 7일」에서 하루만에 일어난, 다소 해학적 웃음을 동반하면서 보이는 천황의 죽음과 연루된 오키나와를 에워싼 폭력의 양상들은 천황의 신성성을 탈각시키는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 과정에서 신랄히 드러나고 있다.

Ⅲ. 오키나와 전후의 현실에 침전/전도된 제국의 폭력에 대한 응시

오키나와를 에워싼 폭력에 대한 메도루마의 비판적 시선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오키나와 내부로 전도된 제국의 폭력을 예각적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류큐신보 단편소설상’을 수상한 그의 첫 소설 「어군기(魚群記)」(『琉球新報』, 1983.12.9)에서부터 나타난다. 「어군기」는 표면상 유소년 ‘나’의 시선에 비쳐진 오키나와 북부의 작은 농촌에 있는 파인애플 통조림 공장에 “타이완에서 돈을 벌로 온 계절 노동자(12쪽)”인 타이완 여공과 이 공장에 다니면서 일본 복귀를 주장하는 ‘나’의 형, 그리고 형의 정치적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복귀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나’의 아버지의 얘기를 들려준다. 물론, 여기에는 타이완 여공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지닌 ‘나’와 ‘나’의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가 보태진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의 서사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 ‘나’의 형이 보이는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론과 아버지가 취하는 신중론이 그것이다. 형이 부르는 노랫말, 즉 “굳은 땅을 뚫고/민족의 분노에 불타오르는 섬/오키나와여…(15쪽)”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형의 정치적 입장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환으로 오키나와전에서 승리한 후 대일평화

조약 제3조에 따라 오키나와를 반영구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하여 미국이 사실상 점령 통치하는 류큐 정부를 1952년에 세운 이래 미국의 식민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성취하고자 하는 민족해방의 염원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오키나와가 류큐 처분 이후 일본 제국에 병합되면서 오키나와 전의 참상을 겪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점령군 미국의 또 다른 식민주의 지배는 오키나와를 제2차 세계대전 후 조성된 냉전체제의 군사기지로 철저히 전략시킴으로써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전쟁의 종언으로서 전·후의 평화가 아닌 전쟁이 지속되는 위선적 평화의 현실 아래 미군의 ‘총칼과 불도저’로 상징되는 억압의 삶을 감내해온 것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형의 일본 복귀론은 오키나와 주민 대다수의 정치적 욕망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아버지의 목소리로 대표되는 신중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오키나와의 정치적 입장이다.¹²⁾ “아버지는 복귀하면 나이차(內地人)에게 싼 값에 땅이 팔리게 될 것(14쪽)”을 걱정하는데, 이 같은 아버지의 걱정에는 일본의 식민주의 지배 아래 이른바 소철지옥(蘇鐵地獄)의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오키나

12) 물론, 『어군기』에서는 일본 복귀와 관련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소설적으로 개진되고 있지 않다. 조국복귀론 외에도 소수의 반복귀론(아라카와 아키라, 가와미즈 신이치, 오카모토 게이토쿠, 나카소네 이사무 등) 또한 엄연히 제출되었다. 물론 반복귀론자들 사이에도 세밀한 논점의 차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는 ‘평화헌법을 가진 민주국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에 기반한 것”으로 “식민지 시기와 전시기를 거쳐 오키나와인과 본토인 양측의 대중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던 ‘차별’과 ‘동화주의’에 대한 성찰·반성의 계기가 누락”(정영신, 『제2장 오키나와 복귀운동의 역사적 동학』, 『오키나와로 가는 길』, 소하, 2014, 133쪽)된 채 오키나와의 광범위한 대중운동 속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서, 반복귀론자들 중 가와미즈 신이치의 입장은 메도쿠마의 독립론과 다른 차원, 즉 자립론에서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가와미즈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국복귀론) 왜 ‘위험한가’ 하면, 복귀운동을 추진한 사람들 대부분이 제2차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천황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전후에는 일단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과거의 천황국가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절실한 반성도 없었고, 전후에 새롭게 출발한 일본이라는 ‘국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자’라든가, ‘조국’이라든가 하는 서정적인 지점으로 수렴되어 가는 건 당연한 결과였지요”(가와미즈 신이치, 『오키나와에서 말한다』, 이지원 역, 한국학술정보, 2014, 56-57쪽).

와의 농업경제의 현실을 회고해볼 때 또 다시 야마토의 경제적 구상에 속수무책으로 포획된, 그리하여 소철지옥 시절처럼 일본의 광역경제를 구축시키는 데 기꺼이 오키나와가 희생함으로써 결국 오키나와의 농업 생산을 일본 제국의 광역경제 유지를 위한 임금노예로 전락시킨 뼈아픈 경험을 소홀히 간주할 수 없다.¹³⁾ 다시 말해 ‘나’의 아버지는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가 미국의 군사기지로부터 해방되는 민족해방과는 다른 차원의 경제적 구속과 억압이 일본에 의해 다시 오키나와를 엄습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군기」에서 이 같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여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오키나와의 파인애플 공장에 계절 노동자로 돈을 벌러 온 타이완 여공과 오키나와 현지인 사이에 형성된 차별적 구조다. 타이완 여공을 지칭하는 ‘타이완이나구(臺灣女)’로 불리우는 “그 말에는 멸시와 외잡한 울림이 내장돼 있(13쪽)”는 바, ‘나’의 부모는 타이완 여공을 멸리할 것을 ‘나’에게 강하게 경고한다. 기실 ‘나’의 형은 파인애플 공장에 다니면서 타이완 여공과 밀애를 즐기고 ‘나’ 역시 타이완 여공을 향한 성적 호기심으로 충만해 있는 터에 부모님의 경고는 안중에도 없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타이완 여공은 ‘나’와 형에게 한갓 성적 욕망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은 은연중 타이완 여공을 향한 민족적·경제적 차별의 시선을 투사한다. 여기에는 과거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 지배 아래 놓인 타이완을 향한 억압의 시선이 겹쳐지고 있다. 작중에서 일본 복귀론이 오키나와의 주류적 목소리임을 환기해보건대 오키나와 주민들의 무의식 속에는 오키나와가 일본 복귀 후 일본의 주권 국민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이것은 과거 일본 제국의 국민이 타이완을 식민주의 지배를 했던 기억과 겹쳐지는 역사를 오키나와의 현재로 덧씌운다. 이렇게 과거 타이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식민주의 지배자의 시선은 일본 복귀론이 우세한 오키나와에 전도된 채 타이완 계절 노동자인

13) 소철지옥 시절 오키나와의 제당업은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 세계 설탕시장,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바 설탕의 수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키나와 제당업은 해체와 붕괴에 직면하였고, 그에 따라 오키나와의 사탕수수 농업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이에 대해서는 도미야마 이치로, 『유착의 사상』, 심정명 역, 글항아리, 2015의 제3장과 제4장 참조.

타이완 여공을 향한 차별적 시선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이 작중에서 한층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타이완 여공을 그토록 멀리하라고 주의를 준 ‘나’의 아버지도 타이완 여공과 밀애를 즐겼다는 사실이 ‘나’에게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타이완이나구’로 불리우면서 오키나와 공동체로부터 혐오와 경계의 대상, 즉 모멸적 성적 비하의 대상으로 불려진 계절 노동자인 타이완 여공을 오키나와의 남성들은 모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오키나와가 이후 풀어야 할 식민주의 비판과 해방의 문제는 중층적이다.

여기서, 타이완을 매개로 한 오키나와에 대한 메도루마의 문제의식은 「마아가 바라본 하늘(マーの見た空)」(『季刊おきなわ』, 1985. 9)에서 좀 더 래디컬하게 부각된다. 작중인물 마아는 타이완 여공과 오키나와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남아로서 ‘나’의 오키나와 공동체로부터 민족적·인종적 차별을 받는다. 오키나와의 마을 사람들은 마아가 오키나와의 순수한 혈통을 간직하지 못한 채 태어난 더러운 피를 지녔으므로 오키나와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간주한다. 심지어 마아는 또래의 오키나와 태생의 친구들로부터도 자위를 강요받으면서 성적 수치심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성적 노리개로 치부된다. 이처럼 마아는 오키나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차별받는 존재일 따름이다. 게다가 마아는 오키나와 여성 M을 성적으로 모독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덤 속에 감금당한다. 「어군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오키나와에 있는 과인애플 공장의 계절 노동자였던 타이완 여공을 향한 일본 국민으로서 식민주의 지배권력의 욕망이 오키나와에 전도된 현실을 메도루마는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일본 제국이 야마토를 제외한 다른 민족과 인종을 구조적으로 차별한 식민주의 억압이 포개지는데, 일본으로 복귀한 이후 오키나와는 전후의 현실에서 오키나와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자칫 오키나와 내셔널리즘을 강박증처럼 내면화시키는 가운데 오키나와 공동체와 다른 타자의 존재를 소외·배제·억압하는 방식으로 제국의 식민주의 권력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메도루마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메도루마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혼혈아 마아가 오키나와

의 폐쇄적 공동체로부터 기인한 부정한 것을 일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기실 마아는 오키나와의 정령과 공감하는 비의성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마아는 오키나와의 자귀나무 정령과 소통하면서 친구 ‘나’에게 잭나이프로 자귀나무에 인위적 상처를 입히지 말 것을 종용한다. 뿐만 아니라 숲 속 공동묘지의 무덤 안에 안치된 마아의 시신이 무덤 밖으로 나와 오키나와 전통적 소싸움장에 나타나더니 거의 초죽음 상태에 놓인 자신이 사랑하는 소 N에 기적의 승리를 안겨준다. 말 그대로 이 장면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환상적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메도루마가 혼혈아 마아를 오키나와 공동체 권력에 패배자로서 희생되도록 방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메도루마는 오키나와가 오키나와전을 치르고 미국의 점령기에 놓이면서 모든 삶이 절멸 속에서 망실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의 자연과 풍속이 지닌 ‘경이로운 현실’¹⁴⁾이 지닌 오키나와의 힘을 상기시킨다. 이 힘은 오키나와 내부를 향해 뼈아픈 반성적 성찰의 윤리 정립의 문제를 제기한다. 마아는 오키나와 공동체가 은폐하려는 타이완 여공을 향한 계급적 인종주의의 실상을 폭로하는 매개물로 작용한다. 이것은 오키나와에 전도된 제국(일본 및 미국)의 폭력을 메도루마가 정직하게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마아가 오키나와 공동체로부터 심한 계급적 인종주의 차별이 각인된 서벌턴이란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메도루마는 오키나와 공동체가 이러한 서벌턴의 존재를 결코 은폐시키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상적 장면을 과감히 삽입함으로써 다소 충격적인 서사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바꿔 말해 작품의 말미에서 보이는 마아의 환생과 결부된 환상적 장면의 도입은 오키나와에 침전된 폭력의 양상이 마아와 같은 서벌턴의 존재를 영원히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메도루마식 리얼리즘으로 서사화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서구의 미의식에

14) ‘경이로운 현실’이란 개념은 쿠바 출신 작가 알레호 카르펜티에르(1904-1980)로부터 시사받은 것으로, 대자연과 신화적 세계, 그리고 오랜 서구의 식민주의 억압 속에서 서구의 미학으로는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특유의 리얼리티를 가리킨다. 메도루마의 문학에서 이 ‘경이로운 현실’은 그의 특유의 환상적·몽환적·비의적 표상이 오키나와의 역사적 풍경의 속성을 띤 오키나와의 자연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에 대해서는 고명철, 앞의 글, 119-125쪽 참조.

기반한 마술적 리얼리즘과 다른 ‘오키나와 리얼리즘’의 구체적 한 사례로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IV. 오키나와의 분열증적 증후와 혼돈에 대한 소설적 전언

오키나와의 반복귀론자 중 가와미즈 신이치가 적확히 언급하듯, 미국과 일본은 그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즉 중국과 소련을 포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거점으로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 전토를 ‘산 제물’로 삼겠다는 미국의 은밀한 계산과 군사적 이권, 그리고 국외로 팽창하는 일본의 경제적 잉여가 오키나와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채 오키나와 주민들의 눈을 속이는 협잡외교로 오키나와를 일본으로 복귀시켰고, 그 이후 오키나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¹⁵⁾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일관계의 기본 틀인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을 반공의 방패로 삼는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¹⁶⁾는 바, 주일 미군 기지 75%를 일본 영토 면적의 0.6%에 해당하는 작은 섬 오키나와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 오키나와는 ‘평화-민주주의-해방’의 기치를 내세운 전‘후’ 일본의 현실과 동떨어진 전쟁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1972년 일본으로 복귀한 이후 오키나와는 야마토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미·일안보체제의 미명 아래 미군 기지가 지속적으로 오키나와에 유지되면서 냉전시대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체제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여전히 새롭게 유지·확산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 복귀 이후 한층 굳건해진 미·일안보체제 속에서 오키나와는 그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현실을 이루고 있다. 메도루마의 초기 작품들 중 「아기 새(雛)」(『新沖繩文學』, 1985. 12), 「거미(蜘蛛)」(『新沖繩文學』, 1987. 6), 「싹트기(發芽)」(『Za』, 1988. 9)는 일본 복귀 후

15) 가와미즈 신이치, 앞의 책, 124-125쪽.

16) 아라사키 모리테루, 『오키나와 이야기』, 김정자 역, 역사비평사, 2016, 123쪽.

이러한 복잡한 현실에 놓인 오키나와 사람들의 분열증적 증후와 내적 상처를 메도루마 특유의 서사로 그려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들 세 작품이 모두 죽음의 모티프를 지닌 채 어떤 일관된 서사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종결이 모호함으로써 여기에 작가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들 세 작품에서 보이는 메도루마의 문제의식과 이를 서사화하는 메도루마의 글쓰기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상호침투하는 오키나와의 복잡한 현실이 고려되어야 함을 말한다.

「아기 새」에서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아내 K는 처음에는 애를 갖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최근 애를 잉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해진 나머지 급기야 “상상 임신”을 한다. 그러면서 K는 새를 살뜰히 키우게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K의 급박한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는 엽기적 장면을 목격한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집안에 들어와 깡판을 친 듯 집안의 집기는 부서져 나뒹굴고 침실에 있는 “K는 몸을 크게 뒤로 젖히더니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마치 짜내는 것과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신음소리를 냈(125쪽)”고, “양쪽 눈 주위가 가부키 분장을 한 것처럼 피투성이였고(125쪽)” 스스로를 자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K는 고양이가 새를 죽였다고 어린애처럼 흐느끼면서 말한다. 그런데 정작 “저민 조각처럼 잘린 아기 새의 사체”(126쪽)는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K의 잔혹스런 행위의 결과였다. “아기 새의 살점 속에 작은 칼(126쪽)”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언제 이 섬뜩한 일이 있었냐는 듯 K는 남편의 손바닥을 자신의 하복부에 갖다대면서 K의 배 속에서 꿈틀거리는 태동을 느껴보라고 한다.

이처럼 「아기 새」의 서사는 표면상 불임부부가 겪는 일상의 고통과 상처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서사는 오키나와의 현실에 대한 은유로 읽어도 무방하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쉽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생명 잉태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상상 임신을 부추길 뿐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은 좀처럼 이룩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상 임신이란 현실의 고통과 상처가 더욱 배가될 뿐이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자기비하와 자기부정은 급기야 자기파괴

와 다른 생명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는 지경까지 이른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행해진 자기와 타자를 향한 고통과 상처는 커켜이 시나브로 쌓이고 이 고통과 상처에 점차 둔감해지면서 내성화된다. 물론 여기에는 생명의 가치와 이 모든 것을 빼앗는 죽음 사이에서 분열증적 증후의 혼돈만이 현실을 압도한다. 일본 복귀 후 오키나와가 겪는 현실이야말로 「아기 새」가 지닌 이 같은 소설적 전언을 메도루마가 타전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거미」는 「아기 새」와 다른 방식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놓인 오키나와의 문제의식을 성찰하도록 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거미」에서 거미는 삶과 죽음의 교차점에 위치하면서 삶과 죽음을 공유하고 있는 비의적 힘을 지닌 존재다. 작중인물 「나」의 대학 친구는 거미를 유달리 좋아하여 온갖 거미를 채집하였는데, 그는 거미를 향한 일종의 가학적 미의식을 보인다. 그는 거미 다리의 부분을 떼어낸 채 걷고 있는 거미의 걸음걸이가 자아내는 이상야릇한 쾌감을 맛볼 뿐만 아니라 다리가 제거된 채 몸통만 남은 거미를 채집하면서 그 채집된 비정상적 거미로부터 「영원성의 미」를 애써 발견한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너석들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 꿈을 꾸는 거야(283쪽).”라고 속삭인다. 말하자면 그는 온전한 거미가 아니라 다리의 부분이 제거된 거미의 걸음걸이와 모든 다리가 제거된 채 몸통만 남은 거미로부터 비정상적 미의식을 탐닉한다. 이 같은 탐미(耽美)가 문제적인 것은 온전한 생명의 아름다운 가치를 파괴하는 과정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적인 것은 탐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힘을 아예 앗아버리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작중인물 「나」가 어떤 소녀의 건강과 활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거미를 잡아다줘야 하고, 잡아온 거미를 소녀는 갖고 놀다가 먹어치운다. 「나」 역시 거미를 먹은 후 “그 이상한 감각과 입안에 남아 있는 달달한 미각에 몹시 취(291쪽)”한다. 거미는 소녀와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효험있는 일종의 약재로서 기능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미는 「나」에게 소녀를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한다. 이처럼 거미는 「거미」에서 누군가에게 탐미로서 가치를 갖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강에 쓰임새 있는 효능의 가치를 가지면서 한때 소중한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도록 한다.

그 양상이야 어떻게 이것들을 횡단하고 있는 것은 거미의 삶과 죽음이 순간 교차·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키나와의 복잡한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의 근저에는 오키나와전 이후 미군 점령기, 그리고 일본 복귀 후 오키나와의 복잡다변한 현실 속에서 숱한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교차·공존하는 오키나와의 삶과 죽음의 양상이다.

이처럼 오키나와의 복잡한 현실이 함의한 메도루마의 소설적 전언은 「싹트기」의 경우 중년 부부의 소원한 관계에서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중년 부부의 삶은 형식적으로 부부라는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지 평소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지점이 없는 채 각자 관심 속 일상을 살아간다. 아내는 타이프라이터를 놓고 타이핑에 중독된 것처럼 무엇인가를 계속 하여 타이핑을 하는 데 여념이 없으며 남편은 뒤에 홀린 채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 생리대를 훔치는 성적 변태자로서 성적 환타지에 탐닉한다.¹⁷⁾ 이렇게 중년 부부의 삶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일상에 몰두한다. 그 어떤 갈등도 없고 관계의 틈새 없이 그렇게 각자의 일상을 살아갈 뿐이다. 그들의 일상에 균열을 낼 정도의 심각한 사건도 없다. 물론 마을 하천에 시체가 떠올랐지만, 그 시체의 주인공이 공원에 자주 출몰하는 술 취한 부랑자란 사실은 그들의 일상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오히려 아내는 그 하천에 죽은 물고기처럼 보이는 죽은 태아를 건져내기 위해 하천 속으로 뛰어드는 엽기적 행동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저 그렇게 오키나와의 일상의 부분을 파편처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메도루마는 오키나와 공동체가 이렇게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산재한 일상의 파편들로 이뤄져 있음을 무미건조하게 보여준다. 이것 또한 메도루마의 초기 소설에서 보이는 ‘오키나와 리얼리즘’의 한 양상이다.

17) 부부의 이 같은 행동은 서로 자연스런 섹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내가 아무 목적 없이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서 타이핑에 중독돼 있는 것과 여성 화장실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생리대에 손이 가 생리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중년 부부의 섹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활하지 않고 각자 충족되지 않은 성욕을 이 같은 각자의 특정한 편집증 내지 성적 변태의 행동으로 해소하는 셈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부부로서 에로스가 격절된 채 고립의 삶의 형식을 유지한다.

V. 오키나와의 디스토피아를 경계한 문학적 보복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오키나와를 에워싼 폭력에 대한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은 에돌아가지 않고 맞서야 할 대상의 중심부를 향한다. 그것은 오키나와의 부정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의 문학적 행동주의와 결부된다. 오키나와의 독립론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뚜렷이 표방한 그에게 일본의 위선적 평화와 전·후'의 현실은 전복과 위반해야 할 기만의 실체인바, 일본과 미국에게 메도루마와 그의 문학은 지극히 불온한 것이다. 일본의 국제인 천황에 대한 가차없는 조롱·야유·비판을 통해 오키나와에 가해진 제국의 유무형의 폭력에 대한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을 우리는 또렷이 목도하였다. 메도루마의 이러한 대항폭력으로서 문학적 보복은 그의 문제작 「코자 거리 이야기-희망」(『아사히 신문』, 1999. 6. 26)에서 미국을 겨냥한다.

지금 오키나와에 필요한 것은 수천 명의 데모도 수만 명의 집회도 아니다. 한 명의 미국인 유아의 죽음이다. (중략) 놈들은 고분고분 열빠진 오키나와인이 이런 짓(세 살쯤 된 미군 어린 남자 애를 유괴하여 목을 졸라 죽인 행위—인용자)을 하리라곤 꿈도 못 꿰던 게다. 전쟁에 기지가 반대한다면 기껏해야 집회나 열고 그럴싸한 데모나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는 암전한 민족. 좌익이나 과격파니 해봤자 실제로는 아무런 피해도 못 입히는 게릴라 짓이 고작. 요인(要人) 테러나 유괴를 할 리도 없고 총으로 무장할 리도 없다. 군용지(軍用地) 대금이니 보조금이니 기지가 배설하는 돈에 물려드는 구더기 같은 오키나와인. 평화를 사랑하는 치유의 섬, 구역질이 난다.¹⁸⁾

분명,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은 논쟁적 지점을 형성할 것이다. 아무리 오키나와가 미·일본보체제 아래 야마토의 번영을 위한 희생의 시스템으로 전략한 채 일본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미군 어린애를 유괴하여 죽이는 반인간적 행위를 통해 오키나와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

18) 메도루마 슌, 「코자 이야기-희망」, 임성모 역, 『지구적 세계문학』 8호, 2016년 가을호, 172쪽.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메도루마의 이 문학적 보복 또한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 오키나와는 폭력의 연쇄로부터 스스로를 가뒤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힐난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메도루마는 바로 이러한 환멸과 절망, 전망 부재의 현실이 오키나와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묵시록적 미래를 이와 같은 서사적 충격으로 경고하는 게 아닐까. 이 같은 오키나와의 현실이야말로 끔찍한 디스토피아 그 자체다.¹⁹⁾ 그것은 「코자 거리 이야기-희망」의 결미에서 “내 행동은 이 섬에게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이리라.”²⁰⁾고 다짐하면서 결국 자신마저 스스로 불태워 죽음에 이르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데서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 전쟁이 항시 존재하는 오키나와의 현실이 말 그대로 전복되지 않는 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유무형의 폭력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러한 폭력의 은폐와 연쇄 속에서 오키나와의 일상(휴양지로서 오키나와 관광 이미지)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묵시록적 미래로 재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메도루마의 이 같은 문학적 보복은 표면상 오키나와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미국-미군 기지와 이것의 이해관계에 편승한 일본을 겨냥한 대항폭력의 성격을 띠되, 심층적으로는 오키나와 폭력의 기체에 대한 발본적 문제제기와 합리적 해결책 없이 일본이 기만적으로 포장하는 평화의 쉽터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유무형의 폭력으로 점철된 지옥도가 바로 오키나와의 현실로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준열히 경고한다. 따라서 메도루마의 문학적 보복-대항폭력을 단순히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후 메도루마의 초기 소설에서 탐색되는 이러한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른 작품 속에서 어떠한 맥락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읽기가 요구된다.

19) 이러한 메도루마의 인식은 이케자와 나쓰키와 가진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낸다. “실은 오키나와 자체에는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실은 오키나와 내부에는 거친 것, 꺼림칙한 것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완전히 은폐돼 오키나와는 기원을 올리는 지역이라거나, 치유의 장소라거나 하는 이미지가 유통되고 있습니다(目取眞俊×池澤夏樹, 『新芥川賞作家特別對談: ‘絶望’から始める』, 『文學界』 51, 文藝春秋, 1997. 9, 187쪽).”

20) 메도루마, 「코자 이야기-희망」, 임성모 역, 앞의 책, 174쪽.

참 고 문 헌

1. 저서

- 가와미즈 신이치, 『오키나와에서 말한다』, 이지원 역, 한국학술정보, 2014.
- 개번 맥코맥·노리마즈 사또꼬,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정영신 역, 창비, 2014.
- 도미야마 이치로, 『유착의 사상』, 심정명 역, 글항아리, 2015.
- 아라사키 모리테루, 『오키나와 이야기』, 김경자 역, 역사비평사, 2016.
- 정영신 외 공저, 『오키나와로 가는 길』, 소화, 2014.
- 目取眞俊, 『目取眞俊短編小説選集1 魚群記』, 影書房, 2013.

2. 연구논문

- 고명철, 「오키나와에 대한 반식민주의로서 경계의 문학: 메도루마의 문학을 중심으로」, 『오키나와 문학의 힘』, 오키나와문학연구회 편, 글누림, 2016.
- _____, 「제주 리얼리즘: 구미중심주의를 넘어 ‘회통의 근대성’을 상상하는 제주 문학」, 『미래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제주 인문학 가치 담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10. 28.
- 곽형덕, 「메도루마 순 문학과 미국」, 『오키나와 문학의 힘』, 오키나와문학연구회 편, 글누림, 2016.
- 김재용·메도루마 순, 「대담: 메도루마 순」, 『지구적 세계문학』 5호, 2015년 봄호.
- 메도루마 순, 「코자 거리 이야기」(『아사히 신문』, 1999. 6. 26), 임성모 역, 『지구적 세계문학』 8호, 2016년 봄호.
- _____, 「1월 7일」, 『新沖繩文學』, 1989. 12.
- _____, 「싹트기(發芽)」, 『Za』, 1988. 9.
- _____, 「거미(蜘蛛)」, 『新沖繩文學』, 1987. 6.
- _____, 「아기 새(雛)」, 『新沖繩文學』, 1985. 12.
- _____, 「마아가 바라본 하늘(マーの見た空)」, 『季刊おきなわ』, 1985. 9.
- _____, 「어군기(魚群記)」, 『琉球新報』, 1983. 12. 9.
- 심정명, 「오키나와, 확장되는 폭력의 기억」, 『인문학연구』 52집, 2016.
- 目取眞俊·池澤夏樹, 「新芥川賞作家特別對談: ‘絶望’から始める」, 『文學界』 51, 1997. 9.

3. 외국서

- A. Nandy, *The Illgitimacy of Nationalism Rabinranath Tagore And The Politics of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Abstract

Literary Revenge on Okinawa's Violence and 'Okinawa Realism'

— focusing on Medoruma Shun's Early Works

Ko, Myeong-Cheol*

Among the Okinawa's working novelists what the understanding about Medoruma Shun who has not only independent agenda of Okinawa in terms of absolute political consciousness but also practices directly it for himself can't be consider being separated from his literature. This has been placed the most important problem from his early works. Medoruma's works can never be indifferent to his literary activism. It is the literary correspondence on Okinawa's violence aspects. What the violence emerging in his works is described how to hide violence through hypocritical reality of post war being covered Okinawa, the politics of memory and struggle on Okinawa War tamed are revealed by nation state's systematic violence. Meanwhile Medoruma does not only criticize the Emperor System of Japan, shows the trauma of Okinawa War, but also performs counter violence i.e. literary revenge on something kinds of violence being influenced by USA dominates. Besides he gazes diverse Okinawa violence aspects sanctioned deeply in Okinawa daily lives that's why beyond acknowledgement recognition as victim for unilateral violence shows sharp critical position towards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wangwoon University.

Okinawa being troubled schizophrenic symptoms in this reality.

Therefore we inspect how to emerge the violence aspects surrounded Okinawa being focused on Medoruma's works through his literary activism. He practices counter violence against Japan of which is related to the interests with USA-USA military base risking Okinawa's daily lives. Of course there is a significant watch on what the hell will approach to Okinawa's reality unless the radical questions and reasonable solutions on the mechanism of violence in Okinawa will be submitted for us. Hence there is the very reason why we don't simply recognize his literary revenge-counter violence. So, his literary revenge helps the understanding on Okinawa Realism.

Key Words : Medoruma Shun, violence, literary revenge, counter violence Okinawa Realism, post war.

교신 : 고명철 01897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 mcritic@daum.net)

논문투고일 2016. 12. 22.

심사완료일 2017. 02. 03.

게재확정일 2017. 02. 07.